

〈★ 기출 준킬러유형 - 어법편 ★〉

2020 ~ 2019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 (고3)

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 modern adult human brain weighs only 1/50 of the total body weight but uses up to 1/5 of the total energy needs. The brain's running costs are about eight to ten times as high, per unit mass, as ① those of the body's muscles. And around 3/4 of that energy is expended on neurons, the ② specialized brain cells that communicate in vast networks to generate our thoughts and behaviours. An individual neuron ③ sends a signal in the brain uses as much energy as a leg muscle cell running a marathon. Of course, we use more energy overall when we are running, but we are not always on the move, whereas our brains never switch off. Even though the brain is metabolically greedy, it still outclasses any desktop computer both in terms of the calculations it can perform and the efficiency ④ at which it does this. We may have built computers that can beat our top Grand Master chess players, but we are still far away from designing one that is capable of recognizing and picking up one of the chess pieces as ⑤ easily as a typical three-year-old child can. [3점]

2.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 present moment feels special. It is real. However much you may remember the past or anticipate the future, you live in the present. Of course, the moment ① during which you read that sentence is no longer happening. This one is. In other words, it feels as though time flows, in the sense that the present is constantly updating ② itself. We have a deep intuition that the future is open until it becomes present and ③ that the past is fixed. As time flows, this structure of fixed past, immediate present and open future gets carried forward in time. Yet as ④ naturally as this way of thinking is, you will not find it reflected in science. The equations of physics do not tell us which events are occurring right now — they are like a map without the “you are here” symbol. The present moment does not exist in them, and therefore neither ⑤ does the flow of time. [3점]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Monumental” is a word that comes very close to ① expressing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as fully as it ② did in Egypt. The reason for this is not the external size and massiveness of their works, although the Egyptians admittedly achieved some amazing things in this respect.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 ③ those of Egypt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But massiveness has nothing to do with monumentality. An Egyptian sculpture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is more monumental than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④ that constitutes the war memorial in Leipzig, for instance. Monumentality is not a matter of external weight, but of “inner weight.” This inner weight is the quality which Egyptian art possesses to such a degree that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eval stone, like a mountain range, even if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⑤ carved in wood. [3점]

* gigantic: 거대한 ** primeval: 원시 시대의

***cosmology: 우주론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Not all organisms are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to survive, so starvation is a kind of disvalue often found in nature. It also is part of the process of selection ① by which biological evolution functions. Starvation helps filter out those less fit to survive, those less resourceful in finding food for ② themselves and their young. In some circumstances, it may pave the way for genetic variants ③ to take hold in the population of a species and eventually allow the emergence of a new species in place of the old one. Thus starvation is a disvalue that can help make ④ possible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 Starvation can be of practical or instrumental value, even as it is an intrinsic disvalue. ⑤ What some organisms must starve in nature is deeply regrettable and sad. The statement remains implacably true, even though starvation also may sometimes subserve ends that are good.

* implacably: 확고히 ** subserve: 공헌하다

1. 2020학년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3)

[해석]

현대 성인의 뇌는 무게가 전체 체중의 5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총 에너지 필요량의 최대 5분의 1까지 사용한다. 단위 질량 당, 뇌의 유지 비용은 신체 근육의 유지 비용의 8배에서 10배 정도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약 4분의 3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 내기 위해 광대한 연결망에서 소통하는 분화된 뇌세포인 뉴런에 사용된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개개의 뉴런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 다리 근육 세포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달리고 있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항상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 반면 우리의 뇌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 비록 뇌가 신진대사 작용에서 탐욕스럽기는 해도, 수행할 수 있는 계산과 이를 수행하는 효율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은 여전히 어떤 데스크톱 컴퓨터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가 최고의 그랜드 마스터 체스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 인 세 살배기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쉽게 체스의 말 중 하나를 인식하고 그것을 집어들 수 있는 컴퓨터를 설계하는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정답] 3번

[해설] ③ 형용사 자리: 앞에 있는 'an individual neuron'을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sending으로 고치는 것이 올바르다.

- ① 대명사: 앞에 있는 costs와 those는 수일치 된다. 어법상 올바르다.
- ② p.p 수식(수동태): '전문화 된 뇌세포들' 로, 해석상 수동이다. 어법상 올바르다.
- ④ 관계부사: 앞에 사물명사, 뒷문장 완전문 (SVO)로 어법상 올바르다.
- ⑤ 부사: 앞에 있는 is capable of ~를 수식한다. 동사를 꾸미므로 어법상 올바르다.

[어휘] efficiency 효율성 cost 나가는 비용 pieces 조각

2. 2020학년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3)

[해석]

현재 순간은 특별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실재 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예상할 지라도, 여러분은 현재에 살고 있다. 물론, 여러분이 그 문장을 읽었던 그 순간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순간은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 해서, 현재가 지속적으로 그 자체를 갱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시간은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미래가 그것이 현재가 될 때까지 열려 있고 과거는 고 정되어 있다는 깊은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정된 과거, 당면한 현재 그리고 열린 미래라는 이 구조가 시간 안에서 앞으로 흘러간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이 자연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은 이것이 과학에 반영된 것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물리학의 방정식들은 어떤 사건들이 바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는데, 그것들은 '현재 위치' 표시가 없는 지도와 같다. 현재 순간은 그것들 안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시간의 흐름도 그렇지 않다.

[정답] 4번

[해설] ④ 부사: 주어는 this way of thinking 동사는 is이다. beV 뒤에는 부사가 나올 수 없으므로, natural이 올바른 표현이다.

- ① 관계부사: 앞 명사가 사물이고, 뒷 문장이 완전하다 (SVO), 어법상 올바르다.

- ② 재귀대명사: 주어(the present)와 목적어 (itself)가 일치한다. 어법상 올바르다.
- ③ 병렬구조: 앞에 있는 that the future is open과 that the past is fixed를 and가 병렬하는 구조이다. 어법상 올바르다.
- ⑤ 부정어구 도치: neither does the flow로 수일치가 맞다. 어법상 올바르다.

[어휘] exist 존재하다 anticipate 기대하다 immediate 즉각적인

3. 2019학년도 수능

[해석]

‘기념비적’이라는 말은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데 매우 근접하는 단어이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기념비성이라는 특성이 이집트에서처럼 완전히 달성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그들 작품의 외적 크기와 거대함이 아니다—비록 이집트인들이 이 점에 있어서 몇 가지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많은 현대 구조물은 순전히 물리적인 크기의 면에서는 이집트의 구조물들을 능가한다. 그러나 거대함은 기념비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겨우 사람 손 크기의 이집트의 조각이 Leipzig의 전쟁 기념비를 구성하는 그 거대한 돌무더기보다 더 기념비적이다. 기념비성은 외적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무게’의 문제이다. 이 내적 무게가 이집트 예술이 지닌 특성이기에, 이집트 예술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작품이 단지 폭이 몇 인치에 불과하거나 나무에 새겨져 있을지라도, 마치 산맥처럼 원시 시대의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정답] 2번

[해설]

- ② it은 the quality of monumentality를 가리키고 문맥상 그것이 달성되었다는 의미로 was achieved를 대신할 수 있게 did를 was로 고쳐야 한다.
- ① 전치사 to에 이어지는 동명사로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 ③ 앞에 있는 복수 명사인 structures를 대신하는 those로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 ④ that gigantic pile of stone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끄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 ⑤ even if it is에 이어지는 표현으로 carved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다.

[어휘] monumental 기념비적인 monumentality 기념비성 massiveness 거대함 constitute 구성하다 mountain range 산맥

4.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3)

[해석]

모든 유기체가 생존에 충분한 먹이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기아는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반가치 (反價値) 이다. 그것은 또한 생물학적 진화가 기능하게 되는 선택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기아는 살아남기에 덜 적합한 것들, 즉 자신과 자신의 새끼 들을 위한 먹이를 찾는 수완이 모자라는 것들을 걸러 내는 데 도움을 준다. 몇몇 상황에서 기아는 유전적 변종들이 종의 개체군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결국 에는 이전의 종을 대신하여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기아 는 더 큰 다양성이 주는 이익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가치이다. 기아

가 고유한 반가치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실용적인, 즉 도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일부 유기체들이 자연에서 기아를 겪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슬프다. 기아가 때로 좋은 목적에 공헌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은 여전히 확고하게 진실이다.

[정답] 5번

[해설]

- ⑤ '라는 것'이라는 뜻을 표현하려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써야 한다. 뒤 에 필수적인 구성 성분을 모두 갖춘 완전한 절이 왔으므로 what은 쓸 수 없다.
- ①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the process of selection이다. by which는 결국 function에 연결되어 function by the process of selection (선택의 과정에 의해 기 능하다) 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다.
- ② those less resourceful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므로 재귀대명사 themselves는 올바른 표현이다.
- ③ to take hold ~는 앞선 의미상의 주어 for genetic variants와 함께 그 앞의 명사 the way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으로서 올바른 표현이다.
- ④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는 등사 make의 목적어이며 possible) 목적격 보어이다. 목적어가 상대적으로 길어 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도치된 형태이므로 올바른 표현이다.

[어휘] organism 유기체 sufficient 충분한 starvation 기아, 굶주림 evolution 진화 filter out ~을 걸러 내다 resourceful 수완이 있는, 기략이 있는 pave the way길을 열어 주다, 상황을 조성하다 variant 변종 take hold 장악하 다 emergence 출현 in place of ~을 대신하여 instrumental 도구적인, 도움이 되는

<다음시간 이런 특강 / 캐스트 / 자료 받고 싶어요! - 학생들의 NEEDS>

<이번수업 이런 부분 좋았어요! - 학생들의 FEEDBACK>

→ 언제나 자유롭게 제출하면, 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강의향상에 힘쓰겠습니다.